

소아 코골이

조선대병원 박준희 이비인후과 교수

# "아이 짜증 늘고 집중 못하면 잠버릇 보세요"

## 편도 비대증, 기도 좁아져 무호흡 유발 뇌 산소 공급 부족…두뇌발달·성장 더뎌 '피타' 수술, 통증 적고 일주일 내 회복

주부 김모(37)씨는 6살 된 아들의 코골이 때문에 고민이다. 코골이가 심한 아들은 잘 때 입을 다물지 못하고 가끔씩은 한참동안 숨이 끊어지는 수면 무호흡 증세까지 보인다. 수술을 시키려고 해도 성장기 아들에게 스트레스가클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편도수술을 하면 한 달 동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는 말을 들은 터라 걱정이 이만저마이 아니다.

주변에서 코를 골거나 평상시에도 입을 벌리고 숨 쉬는 아이들을 보면 이제는 누구나 편도가 너무 큰 거 아닌가 하고 한 번씩 고개를 갸우뚱 할 정도로 편도 아데노이드 수술은 보편화됐다.

하지만 수술 후 음식을 못 먹을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 나 출혈, 이로 인해 수술 받은 아이들이 보채고 회복이 더 딘 불편한 얘기를 주변에서 들은 부모들은 쉽사리 수술결 정을 못 내리고 병원들을 전전하다가 정작 아기의 수술 시 기를 놓치게 된다.

소아 코골이는 3~12세 어린이 중 10~25%가 해당할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코골이를 가벼운 잠버릇으로 여기 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코골이로 뇌가 충분히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아이의 성장발달과 두뇌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간과해선 안 된다. 소아 코골이의 원인 과 치료에 대해 알아본다.

◇코골이 원인과 증상=코골이는 코와 기관까지 연결 해주는 공간인 상기도가 좁아지면서 숨을 들이마실 때 좁 은 상기도와 공기가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거친 소리다. 이중 10%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까지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골이는 밤에 숙면을 취하기 힘들어 그 영향이 낮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성장호르몬은 밤에 왕성하 게 분비되기 때문이다. 두뇌 성장에도 영향을 준다. 심한 코골이와 무호흡은 혈액 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서 뇌 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소아 코골이의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는 것은 편도 및 아데노이드 비대다. 입천장의 편도나 목젖 뒤의 아데노이 드가 비대해지면 코골이 증상이 나타난다. 편도 아데노이 드 비대로 인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성장과 학습 능 력에도 문제가 되고 얼굴이 길어지면서 성장기 외모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수술 결정은 수술 전문의의 판단 하에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 좋다. 문제는 수술 후 통증이다.

◇피타(PITA), 무통증 편도 수술 호응=최근 수도권에서는 피타(PITA)수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의 편도절제술은 편도와 편도가 붙어있는 일부 피막 근육층까지잘라내는 방법이었다. 반면 피타(PITA)수술은 일반인들에게 아주 생소한 수술법이지만 기존 수술의 단점을 보완, 미세절제 흡인기를 이용해 편도 주변의 피막과 근육층을 보호하면서 편도를 제거하는 수술 방법이다. 수술후 통증이나 출혈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합병증의 위험이적으면서 회복이 빠르다는 게 장점이다.



조선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준희(왼쪽) 교수가 아데노이드 비대로 인해 코골이에 시달리는 어린이에게 피타 수술을 하고 있다.  $\langle$  조선대병원 제공 $\rangle$ 

박준희 교수는 "아이가 코를 곤다는 것은 바로 잡아야할 건강상의 문제나 생활습관이 생겼다는 뜻일 수 있다. 아이가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줄어들거나 숙제를 할때 집중을 못하거나, 짜증이 늘거나, 친한 친구들이나 가족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아이의 잠버릇, 수면습관을 확인해 볼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선대병원 이비인후과 도남용·박준희 교수팀은 편도 및 아데노이드 관련 질환을 앓는 어린 아이들의 통증과 회복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피타(PITA)수술을 시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수술 시간은 15~20분 소요된다.

피타 수술은 기존의 편도 아데노이드 수술과 같이 환자가 내는 비용은 동일하다. 수술기구 및 장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편도질환에 시행 중인 포괄수가제로 인해

진료수가가 이미 정해져 있는 대형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시행을 꺼리는 경우도 많다. 이로인해 상당수 광주·전남 환자들이 이 수술을 받기 위해 일부러 수도권 병원으로 향하기도 한다.

박준희 교수는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은 미국에서만 1년에 26만건이 시행될 정도로 보편적인 수술로 편도질환으로 평생 고생하느니 가능하면 소아 때 수술하는게 좋고, 적응이 된다면 피타 수술을 시도해볼 수 있다. 피타수술은 기존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술과 동일한 효과를나타내면서도 수술 후 통증이 훨씬 적고, 회복 기간이 아주 빠르다. 회복이 빠른 아이의 경우 3일에서 1주일이면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전했다.

기술 두 있다. 고 진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위 내시경 절제 환자 5년새 3배 증가"

## 화순전남대병원·전남대병원 4309명 중 50~70대 87% "위암 조기 검진·발견 중요"

조기위암으로 화순전남대병원과 전 남대학교병원에서 내시경 절제술을 받 은 환자가 5년새 약 3배 증가했다.

또한 내시경 시술 환자 중 50대~70 대 연령층이 무려 87%를 차지했으며, 남성이 여성의 1.8배에 달한 것으로 나 타났다.

화순전남대병원 및 전남대병원 소화 기내과가 최근 5년간(2011~2015년) 위 종양으로 내시경 절제술을 받은 환자 4309명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위내시경 절제술은 위내시경을 이용하는 시술로, 전신마취 없이 진정상태에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내시경을 이용해위장 내부에 절개용 전기칼을 넣은 후내시경으로 병변을 확인하면서 병변만을 선택적으로 절제하므로 복부에 수술흔적이나 위절제 없이 종양만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위 내시경 절제술을 받은 환자는 지난 2011년 357명에서 2015년 1025명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60대(60~69세) 환자

가 34%(1454명)로 가장 많았으며, 70대 32%(1372명)·50대 21%(915명)·40대 7%(291명)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위 내시경 절제술은 50~70대 환자가 87%를 차지해 고 연령층일 수록 검진을 통해 위암을 조기 발견하여 내시경적 시술을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 됐다. 또 40대의 경우도 꾸준히 증가해 31명에서 64명으로 5년새 2배 늘었다. 성별로는 남성 환자가 2761명으로 여성(1548명)의 1.8배에 달해, 위종양은 남성에게서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여성 환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조사에서 위종양 환자 중 위암 전단계인 선종 환자가 2836명 이었으며, 상피내암 430명·위암 1043명이었다.

지난 2013년 현재 국내 암 통계에 따르면 위암이 3만184명으로 갑상선암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암 조기 검진과 환자들의 적극 적인 검진 영향으로 위암을 조기에 발견 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최소 침습 시술인 내시경 절제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조기위암 비율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위암 환자의 약 50%가조기위암 단계에서 진단되고 있어 고무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내시경 절제술은 복부에 상처가 남지 않고, 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돼 시술 후 생활이나 음식 섭취 등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게 장점이다. 또 전신마취 수 술에 비해 회복 및 입원 기간이 매우 짧 고, 위장관 기능이 보존돼 치료 후 삶의 질이 훨씬 향상된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 을 수 있다.

화순전남대병원 소화기내과 이완식 교수는 "우리나라의 위암 치료수준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과거에는 위암을 진 단 받으면 전신마취 후에 개복수술을 하 는 것을 당연히 생각했지만 최근들어 조 기 위암을 수술없이 내시경을 이용해 치 료하는 내시경절제술이 기존의 위암치 료법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얼음물로 무더위 극복 선한병원(대표원장 정성헌)은 최근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광장에서 택시기사와 시민들에게 얼음 생수와 함께 '시원한 얼음 생수 드시고 힘내세요!'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 G.O.Auction

##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일반 부동산 매매, 임대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NPL 컨설팅

### 경매 추천물건

- ★ [상가] 광주 남구 월산동 동가오피스빌 1층 건물 476㎡ 대로변 전시장 판매장 금융매장추천 감정가 15억 ▶ 최저가 15억
- ★ [상가]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10층중 10층 스카이라운지 상가 483㎡ 카페, 7080, 맥주전문점 추천 감정가 8억7천7백 ▶ 최저가 6억1천3백
- ★ [상가]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인근 대로변 2층상가 토지 735㎡ 건물 449㎡ 감정가 11억8천7백 ▶ 최저가 8억3천1백 ★ [공장] 광주 광산구 안청동 공장 대지 5,940㎡ 건물 5,872㎡
- 감정가 57억6천7백 ▶ 최저가 20억6천7백(36%) 기아차공장인근
  ★ [상가] 광주 동구 금남로5가 대로변 산업은행인근 3층상가 대지 566㎡
- 건물 827㎡ 광고효과최상 감정가 21억3천2백 ▶최저가 11억9천4백(56%)
  ★ [토지] 광주 광산구 월전동 대지330㎡ 평동산단 원룸부지 교통편리 코너위치 감정가 1억6천4백 ▶ 최저가 1억6천4백 투자추천
- ★ [상가] 영암군 시종면 만수리 3층상가 대지 691㎡ 건물 1008㎡ 감정가 8억8천3백 ▶ 최저가 3억1천6백 (36%) 투자추천
- ★ [공장] 곡성군 석곡면 연반리 석<del>곡농공</del>단지 대지 4,753㎡ 건물 2,619㎡ 감정가 7억8천3백 ▶ 최저가 2억8천 (36%) 투자추천

### 투자 추천 물건

- ★ [상가] 광주 북구 용두동 대로변 6층상가 대지 525㎡ 은행, 사우나등 고수익 유동인구많음 ▶ 매매 55억원
- ★ [무인텔] 광주 북구 유동 무인텔 대지 1,010㎡ 건물 1,610㎡ 객실 20개 월 5천만원수익 위치좋음 ▶ 매매 20억원
- ★ [상가] 광주 수완동 경찰지구대 인근 아파트상권 4층상가 준주거지역 대지 475㎡ 월8백만원 ▶ 매매가 17억
- ★ [상가] 광주 서구 풍암동 대형마트 대지 2,961㎡ 1층 마트, 2층 의원, 3층 학원 대형주차장 매매가 상담결정
- ★ [상가] 광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신축 4층빌딩 대지 782㎡ 건물 1,829㎡ 보증금 6억 월2천3백 융18억 ▶ 매매 48억
- ★ [토지] 주월동 EG더원아파트 인근 대지 661㎡ 현 식당운영중 투자적합 대형 판매장 상가 건축적합 ▶ 매매13억원 ★ [상가]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3,245㎡ 지상9층
- ★ [상가]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융 30억 보증금 2억7천 월 3천2백만원
  ▶ 매매 50억 (요양병원하가취득)
- ★ [토지]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역앞 대지 480㎡ 업무지원시설부지 코너위치 건폐70% 용적250% 급매가 4억4천 (급매, 조정무)

#### 수익형 추천

- ★ [모텔] 전남 영암군 월출산 조망 5층 모텔 대지 1,181㎡ 건물850㎡ 대로변 내외부깨끗 매매 4억 (융2억7천) 투자적합 장기투숙 다수 직영추천
- ★ [상가주택] 광주 첨단2지구 대지 258㎡ 건물380㎡ 코너위치 1층상가 다가구5세대 안집 월 440만원 융 2억2천5백 매매 9억3천
- ★ [펜션]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수익성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담후 결정
- ★ [토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한라산 조망 펜션, 빌라부지적합 4,000㎡ 주택28세대가능 수익형 28억선 교환
- ★ [오피스텔] 광주 동구 지산동 대지 298㎡ 건물 1,088㎡ 원룸18개 투룸6개 쓰리룸6개 (융4억5천포함) 대로변 버스정류장옆 매매13억5천
- ★ [상가] 광주 소촌동 대형상가 대지 2,146㎡ 주차장빌딩 포함 대형마트, 사우나등 고수익상가 매매 상담결정
- ★ [상가] 목포시 연산동 롯데수퍼 인근 대로변 버스정류장앞 대단위 아파트단지 배후 신축 3층건물 대지 1,461㎡ 광고효과 최상 매매 35억
- ★ [상가주택] 광주 남구 주월동 남구청 인근 고수익 4층상가, 오피스텔 대지 366㎡ 건물947㎡ 지하,†층상가 사무실, 2~4층오피스텔 매매13억5천

상가, 주택, 토지, 임야 매매하실분 전속중개 접수 환영 공인중개사 강천구 062-714-2251